# 선명상 센터 만족도 94%…영덕에도 개원

**선명상 중앙본부, 7월 16일**
**운영 성과 · 개원 계획 등 발표**
**7월 22일 개원…지역 거점**
**"선명상 대중화에 더욱 박차"**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일감 스님이 선명상 치유센터 운영 성과와 개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 영덕에 문을 여는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전경.

올해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서울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프로그램 만족도 94%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는 7월 22일 경북 영덕 장육사에 지역 거점인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한다. 서울 도심과 지역을 잇는 치유 거점을 구축해 국민 마음건강 증진과 선명상 대중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평안 선명상 중앙본부(본부장 일감 스님, 이하 중앙본부)는 7월 1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 운영 성과와 영덕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 개원 계획을 발표했다.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7월 6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서울시민과 직장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도심형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7월 프로그램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7월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 13개 프로그램에 253명이 참여했다.

특히 참가자 119명이 동참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94%(매우 만족 74.8%, 만족 19.3%)를 기록했다. 마음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에 대해서도 9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추천 의향은 95%, 재참여 의향은 98.3%로 나타났다. 참가자의 44.5%는 선명상을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초청해 일상 치유 특화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직장인들이 퇴근 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개발에도 진력하고 있다. 7~8월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본부는 7월 22일 나옹 왕사 탄생지인 장육사에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한다.

영덕군으로부터 선명상 치유 전문 시설로 수탁받은 이 센터는 나옹 왕사의 화두 선명상을 기반으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을 치유하는 지역 거점이다. 해당 지역 교구본사인 경주 불국사의 지원으로 선명상 지도자 양성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원장은 성행 스님, 센터장은 박희승 선명상위원이 맡는다.

개원식은 7월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오후에는 나옹 왕사 교육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1호 명장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이 열린다. 또 명상지도자·웰니스 치유관광 전문가 50여 명이 함께하는 '세계평화와 국민 치유를 위한 선명상 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선명상 리더스 포럼이 1박 2일간 이어진다.

센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말 1박 2일 입문코스(8월 1~2일/8월 8~9일/8월 22~23일/9월 19~20일) △나옹 간화선 캠프(8월 14~17일/10월 3~5일/10월 9~11일) △기업·기관 대상 자연 속 치유 프로그램 △불국사·석굴암 연계 'K-선명상 투어' △영덕 나옹 왕사 선명상 축제 △나옹 왕사 수도처 순례 등이 준비돼 있다.

중앙본부는 앞으로 전국 39개 선명상 운영 사찰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 거점 치유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감 스님은 "서울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가 도심 속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치유 공간으로 현대인의 일상 속 정신건강 회복에 기여한다면, 영덕 나옹 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깊은 명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전문 선명상센터 허브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글로벌 웰니스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중앙본부는 이번 두 센터의 개원을 발판으로 선명상 대중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계 자동 품수' 종헌 위배 여부 심사 개시

**조계종 법규위, 제88차 회의**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혜경 스님)가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를 '자동 품수'로 변경한 '법계법'의 종헌 위배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했다.

법규위원회는 7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88차 회의를 열고 '종법의 종헌 위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본안 심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심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6월 15일 청구한 종헌 위배 심판 청구에 따른 것이다. 법산 스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절차를 '자동 품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계법 제8조가 개정돼 같은 해 12월 공포됐다. 그러나 현행 종헌 제28조 제1항 제6호는 원로회의에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어, 하위법인 법계법이 종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혜경 스님은 "현재 제출된 자료의 법리적 판단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다만 이 문제는 향후 종단 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종헌을 개정하든 법계법을 재개정하든 관련 기구들이 소통하고 화합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법규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관련 기구 간 추가 논의를 권고한 뒤 차기 회의에서 심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

**진우 스님, 7월 16일 임명장 수여**



강화 전등사 주지에 지불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지불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전등사는 수행의 등불을 밝히는 직할사찰이자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중심사찰"이라며 "가람을 잘 수호하고 전법과 포교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전등사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려 사찰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불 스님은 범우 스님을 은사로 2013년 수계(사미계)했다. 고려대에서 응용통계 석사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불교미술 박사를 수료했다. 광제사 총무와 전등사 총무 소임을 역임했다.

김내영 기자

# 진우 스님, 장세일 영광군수에 공로패

**불교문화 보존 · 활성화 공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인 전남 영광의 불교문화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장세일 영광군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7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장세일 군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영광의 불교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승할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영광은 불갑사를 비롯한 귀중한 불교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만큼 이를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지역 축제와 관광도 백제불교 역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해 세계인이 찾는 문화자원으로 키워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임은호 기자

# 태고종, 36명 구족계 수지…"계를 생명처럼"

**7월 15일 '제25차 구족계 수계산림'**
**비구 26명 · 비구니 10명 홍가사**
**수행하며 불법 전승 · 계율 실천**



태고종은 7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5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비구 26명, 비구니 10명 등 총 36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태고종 사미·사미니 36명이 구족계를 받고 홍가사를 수하며 정식 출가 수행자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7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25차 구족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비구 26명, 비구니 10명 등 총 36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수계자들은 선암사 전통강원, 동방불교대학 등에서 4년간 종단 교육을 이수했다.

오전 입재식에 이어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열린 수계법회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증명으로 구족계 전계화상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 법륜 스님, 교수아사리 구산 스님이 삼화상을 맡아 봉행됐다. 재홍·능해·도성·영범·휴완·지공·육화 스님이 칠증사로 나섰다.

교수아사리 구산 스님은 수계자들에게 구족계를 받을 수 없는 13가지 조건과 수계 가능한 16가지 조건을 확인했다. 호궤합장한 수계자들은 문답을 통해 스스로 수계 자격을 증명했다. 연비의식에 이어 홍가사를 정대한 수계자들은 불법의 전승과 실천을 서원했다.

전계화상 수진 스님은 법어에서 계율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비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수행승을 보호하고 믿음 없는 이를 교화하며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율장 제정의 10가지 목적을 설명하며 "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수행자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수계법회에 앞서 오전에 봉행된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수계 이후 삶은 더욱 큰 정진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사찰에서의 일상은 물론 포교와 교육, 종단의 여러 불사에도 적극 동참하며 수행과 교화를 함께 실천하는 승려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입재식 후에는 해동율맥 전수조교대진 스님의 '비나야장의 요체' 율장 강의가 이어졌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